

분석의 역설과 역설회피의 전략*

박 준 호**

【국문요약】 분석의 역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자각하고, 이를 회피할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무어(G. E. Moore)이다. 여기서는 이 역설의 해결책을 무어식의 반-언어적 노선과 이에서 벗어나 있는 노선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후자에는 개념의 특징 및 종류, 명제의 구조, 비동등성 관계에 주목해서 역설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있다.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주요 역설해결책을 기술하고 그 분류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또한 각 해결 전략의 한계를 논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려면, 먼저 무어의 분석이론을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어의 분석이론은, 단지 역사적인 중요성뿐 아니라, 고전적 분석의 전형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분석의 역설이 고전적 분석과 같이 특정 유형의 분석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넓은 범위의 분석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겠다. 그러나 더불어 이런 상황이 분석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겠다.

【주요어】 분석의 역설, 분석이론, 무어(G. E. Moore)의 분석이론, 계몽의 동형성

접수일자: 2014.05.22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4.06.08 게재확정일: 2014.06.15

* 이 연구는 “2013년도 후반기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수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을 받았음.

** 전북대학교 철학과, 전북대학교 인문연구원, 전북대학교 비판적 사고와 논술 연구소.

1. 계몽과 분석

분석철학에 관한 흔한 오해는 언어만 분석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적 전회”를 분석철학의 특징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묘사는 분석철학에 대한 표준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중과 다수 지식인의 뇌리에 분석철학과 논리실증주의가 동일시되고 있으며, 게다가 분석철학자 자신이 논리실증주의를 분석철학의 엔진이라고 상찬하는데 대부분 동의하므로 분석철학을 경험주의와 동일시하는 오해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나 분석철학의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도 분석철학의 개조(開祖) 가운데 한명인 무어(G. E. Moore)의 분석이론을 살펴본다면 이런 견해가 바뀔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의 요소, 분석의 해석, 분석의 평가에 관한 견해로 구성되는 무어의 분석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무어의 분석이론은 역설에 부딪힌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한 무어 자신의 대답과 이후에 이루어진 가능한 주요 해결책을 다룬다. 여기까지는 무어의 분석이론과 분석의 역설을 제시하고, 역설회피 방안의 분류(taxonomy)를 제시하는 기술적(descriptive) 작업이 주를 이루지만, 각 역설회피 방안의 한계를 논하는 점에서 순전히 기술적인 작업은 아니다. 또한 이 분류의 방식 자체가 새롭게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또한 분석의 역설이 고전적 분석과 같이 특정 유형의 분석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예를 들어, Ackerman 1990, p. 540; Bealer 1983, p. 711)에 반대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분석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겠다. 분석관계를 필연적 관계로 보면서 분석진술이 정보를 전달하기를 요구하는 이론이라는 어떤 이론이든 역설적 귀결을 갖는다고 주장하겠다. 그러나 더불어 이런 상황이 분석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석은 그 목적이 계몽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불명확한 몽매(obscurantism)에서 벗어나는 계몽(enlightenment) 또는 탈신화화(demythologizing)는 대개 다음과 같은 동형성(isomorphism)을 띤다.

피계몽향 : 계몽향

이 구조는 불명확하여 더 명확히 알려지기를 요구하는 부분(피계몽향)과 이를 더 명확하거나 이해가능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계몽향),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계몽, 위에서는 “:”)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피계몽향과 계몽관계가 특정될 때 계몽의 유형이 나뉘게 되는데, 정의(definition), 분석(analysis), 해명(explication), 설명(explanation), 해석(interpretation), 해설(elucidation)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정의, 분석, 해명, 설명, 해석, 해설 등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계몽이 요구되는 피계몽향에 대하여 나온 처지에 도달하게 된다.

계몽의 여러 유형 가운데 분석은 길고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분석”이라는 용어도 이런 역사를 공유한다. 이 낱말이 이십세기에 사용되었을 때조차도 철학자마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였다(Ackerman 1986, p. 306; Soames 2005, p. 144; Beany 2009a; Beany 2009b). 무엇보다도 “분석”은 과정/소산 애매성을 띠고 있다. “분석”은 분석 과정(analysis as a process)과 분석 결과(analysis as a product)를 의미할 수 있다.¹⁾ 분석가가 분석을 발명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분석과정이라고 한다. 분석을 제시하는 일은 분석을 표현하는 일이며 이는 분석 언어행위(analysis as a

1) 밀스(Mills 2008)도 활동으로서의 분석과 소산으로서의 분석을 구분한다. 후자는 분석문장이다. 전자는 옳은 분석문장을 목적으로 삼고 때로 그런 소산으로 귀결되는 활동을 말한다.

speech act)이다. 분석 언어행위는 분석진술의 발언이나 기재 (inscribing)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과로서의 분석은 분석 언어행위가 표현되는 분석문장 또는 분석진술이다.²⁾ 또한 “분석”은 분석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분석의 일부인 분석항(analysans, 이하 필요한 경우 AS)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만을 분석으로 여기며, 후자는 “분석항”으로 칭하여 구분한다.

분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든지, 또 “분석”이 어떤 것을 의미 하든지, 분석은 계몽의 도식을 공유한다. 분석은 피분석항 (analysandum, 이하 필요한 경우 AM), 분석항, 분석관계(analysing, 이하 필요한 경우 AG 또는 :)로 이루어진다.

피분석항 : 분석항

분석을 표현하는 진술은 위의 분석 도식의 대입 실례이다. 한편, 그 분석이 정확한 분석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분석가가 분석을 제시하는 일은 피분석항과 분석항이 분석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는 일이다. 이는 분석언어행위가 정의언어행위처럼 약정을 제시하는 등의 규정제정이 아니라 진술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분석 언어행위의 수행적 측면은 진술하기이다. 분석을 제시한다는 것은 분석문장이나 진술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기서 “분석진술”(statement of analysis, 또는 analysing statement)은 피분석항, 분석항, 분석관계를 표현한 진술을 의미하므로, 분석적으로 옳거나 그른 진술인 “분석적 진술”(analytic statement)과 구별해야 한다.

2. 무어의 분석이론

1) 분석의 필요조건

무어의 분석개념은, 단지 역사적인 중요성뿐 아니라, 고전적 분석의 전형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무어는 분석만을 유일한 철학의 방법으로 보지 않았지만 분석이 철학이 핵심적인 방법임을 의심하지 않았다(Baldwin 1992, p. 194).³⁾ 무어(Moore 1942, pp. 666-667)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랑포드(Lanford 1942)의 비판에 답하면서 분석이론을 제시한다.

만일 우리가 진술을 제시하면서 개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고 적절하게 말하려면, (a)분석항과 피분석항은 단지 언어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개념**이며, 만일 분석이 정확하면, 어떤 뜻에서는, 피분석항과 분석항은 똑같은 **개념**이어야 하며, (b)피분석항 **표현**은 분석항 **표현**과 달라야 한다. ... (c)피분석항 표현과 분석항 표현이 달라야만 할 뿐 아니라, ①피분석항 **표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개념을 분석항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두 표현은 달라야 한다. 따라서 “X는 남자동기이다.”는 “남자”와 “동기”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X는 형제이다.”는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②물론 전자의 표현은 두 개념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형제” 개념 내에서 두 개념이 **조합된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결의 방법이지만 다른 경우라면 연결과는 매우 다른 방법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조합(combination)의 방법**이 분석항 표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내 생각에는, 분석을 제시하는 일의 필요조건이다. ③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두 조건에서 분석항 표현은 피분석항 표현에 비해서 “덜 관용적”(less idiomatic)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원저자 강조, 번호 ①, ②, ③은 논자 추가]

³⁾ 사실 무어는 철학이 단지 분석일 뿐이라는 견해를 혐오했다. Moore (1966), pp. 172-190.

위의 (a), (b), (c)를 각각 “I-a”, “I-b”, “I-c①, ②, ③”이라 하자. 무어는 이와 더불어 분석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Moore 1942, p. 663). 다음의 각각을 “II-a”, “II-b”, “II-c”라 하자.

일정한 개념 즉 피분석항에 대해서 ‘분석을 제시한다’면 분석항인 개념 즉 다음과 같은 개념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a)분석항이 어떤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피분석항이 그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모른다. (b)분석항이 적용됨을 검증하지 않은 채 아무도 피분석항이 적용됨을 검증하지 못한다. (c)피분석항 표현은 분석항 표현과 동의어일 수밖에 없다.

2) 분석의 해석

무어가 제시한 분석의 조건은 그의 분석이론의 중심을 이룬다. 분석의 요소에 관한 견해(다음 M1~M3)와 분석진술의 격위에 관한 주장(다음 M4~M6)을 분석의 해석이라 하자. 다음은 앞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무어식 분석의 해석이다.

- M1. 피분석항은 개념이다(I-a).
- M2. 분석항은 개념이다(I-a).
- M3. 분석관계는 개념간의 동일성 관계이다(I-a).
- M4. 분석진술이 옳다면 필연적으로 옳다(같은 책, p. 667).
- M5. 분석진술이 옳다면 (어떤 뜻으로인가) 종합적으로 옳다(같은 곳).
- M6. 분석진술의 옳음을 선천적으로 안다(II-a, II-b).

M3은 분석관계가 개념간의 동일성 관계임을 주장하는데, 두 개념의 동일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II-a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개념 동일성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⁴⁾

4) 이는 개념 구분조건에 대한 피록의 착상에서 빌어왔다(Peacocke (2012), p.

임의의 개념 F는 개념 G와 똑같다
 iff. 이성적 사고자가 A(G)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A(F)의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II-b는 M6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개념의 본성과 관련한 많은 논의를 감안할 때 이 두 조건에 대한 논란은 클 것이다.⁵⁾ 여기서는 이 기준의 수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II-c 즉 피분석항 표현과 분석항 표현이 동의어라는 주장을 보면, M5에 대해서 무어가 “분석적”이라고 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같은 곳에서 “어떤 뜻에서는, ‘x는 형제이다.’는 ‘x는 남자동기이다.’와 동의어가 아니다.”고 말한다(Moore 1942, p. 667).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뜻에서는”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어떤 뜻에서는”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논지에 확증 사례만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논증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영어의 “brother”가 불어의 “frere”와 동의어이지만, 이 불어표현이 “male sibling”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⁶⁾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M5를 위와 같이 일의

221). “임의의 개념 F는 개념 G와 다르다 iff. 이성적 사고자가 A(G)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채 A(F)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A(G)’는 해당 개념을 포함하는 주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데카르트 자신이 사용하더라도, 개념 나와 개념 데카르트는 다르다. 기억상실의 상태에서, 데카르트는 내가 데카르트라고 판단하지 않은 채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무어의 개념 동일성 조건은 일종의 내포적인 것이다. 개념 동일성 조건을 반드시 이렇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G임은 F임과 동일하다 iff. F인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G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Chisholm (1992), p. 1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임의의 개념 C는 개념 D와 똑같다 iff. C의 실례인 것은 반드시 D의 실례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Steup (1996), pp. 65-66). 여기서는 번역서의 표현인 “동치이다” 대신에 “똑같다”로 바꿨다.

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⁷⁾ 어떤 뜻으로인가 분석진술은 종합적이기도 하다.

여기서 “어떤 뜻으로”의 유력한 후보는 “언어표현에 관한 정보의 측면”이다. I-b와 I-c는 분석진술의 언어표현에 관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무어는 실제로 분석진술이 개념에 관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덧붙여 언어표현에 관한 주장이라고도 말한다. 이 조건을 제시하던 같은 면에서 무어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형제임은 남자동기임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형제 개념뿐 아니라 사용된 두 언어 표현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취지에서 무어가 분석의 조건에 분석표현의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분석에 관한 이런 견해를 분석에 대한 “반-언어적(a semi-verbal) 해석”이라 하자(Black 1944, p. 264). 이 해석에 대해서는 재론하겠다.

3) 분석의 평가

그가 분석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분석의 평가 기준이 섞여 있다. 그는 분석의 성립을 고려하는 일과 분석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구별하고(Moore 1942, p. 664) 있으면서도 이런 혼동을 범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자. “‘형제임’ 개념은 ‘남자 동기임’과 동일하다.” 내가 이렇게 단언할 때 나는 “형제임” 개념의 “분석을

6) 이 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O'Connor (1982, pp. 220-221)를 참고하십시오.

7) 무어는 모든 필연적 진리를 ‘분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Baldwin (2004, §4) 참고.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나의 단언이 옳다면, 나는 이 개념에 **정확한** 분석을 제시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원저자 강조]

분석을 제시하는 일은 해당 진술이 정확한 분석을 표현한다는 주장일 뿐이며, 제시된 분석이 실제로 정확한 분석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부정확한 분석도 분석이다. 분석가의 분석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정확한 분석일 때만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 인간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무어에 따르면 정확한 분석은 옳은 분석문장으로 제시된다(같은 글 p. 664, 그리고 앞의 II-a). 그리고 무어 자신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I-b, I-c③에 비추어볼 때, 무어는 비순환성을 분석평가의 기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4) 분석의 제시

무어에 따르면, 다음 진술을 제시하는 일은 분석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 진술이 옳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는 일이다. 다음은 분석을 제시하는 여러 방식들이다.

- A1-1. 개념 ‘형제임’은 개념 ‘남자동기임’과 동일하다.
- A1-2. 명제 함수 ‘x는 형제이다.’는 명제 함수 ‘x는 남자동기이다.’와 동일하다.
- A1-3.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to say that)은 그 사람을 남자동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 A1-4. 형제임은 남자동기임과 똑같은 것이다.

또한 “개념”은 “관념, 명제(함수)”와 동일하며(같은 글, p. 661; p. 664), 따라서 위의 분석진술은 모두 똑같다(같은 글, pp. 664-665).

3. 분석의 역설

1) 분석의 역설과 무어의 대응

무어의 분석이론은 촌촌하다. 그가 이렇게 조밀한 이론을 제시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분석의 역설을 방지하고자 했다.⁸⁾ 랑포드는 무어의 분석의 분석 즉 분석 이론이 역설에 부딪친다고 지적한다(Langford 1942, p. 323).

분석의 역설은 결국 이런 내용이다. 만일 피분석항을 표상하는 언어표현이 분석항을 표상하는 언어표현과 똑같은(same) 의미를 갖는다면, 분석은 지나라한 동일성(bare identity)을 진술하며, 그래서 사소하다. 하지만 두 언어 표현이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분석은 부정확하다.

무어는 이 역설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Moore 1942, p. 665; p. 666; p. 667). 그러나 그의 말은 일종의 수사법이거나, 분석의 본성과 평가 기준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다.⁹⁾

그는 랑포드가 피분석항을 오해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랑포드는 언어표현과 의미에 의존해서 분석을 해석하는데, 분석이란 언어 분석이며 또한 의미 분석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비해 무어는 분석이 언어표현(verbal expression)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개

8) 볼드윈에 따르면 랑포드는 무어에게 배우면서 이 역설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랑포드보다 먼저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지적한다(Baldwin (1992), p. 208). 또한 공식적으로는 위즈덤(Wisdom 1934)이 처음 이 역설을 지적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의 『메노』(Meno) 편에 등장한다.

9) 분석의 역설이 진정한 논리적 역설인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느슨한 의미로는 역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타당한 연역적 추론을 거쳐서 전제와 모순되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5장 1절에 있는 도출과정을 참고.

념을 분석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언어표현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같은 글, p. 661).

언어표현 “x is a small y”를 예로 생각해보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이 표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이는 문자 ‘x’, 낱말 ‘is’, 낱말 ‘a’, 낱말 ‘small’, 문자 ‘y’를 포함하고 있으며, ‘x’로 시작되고, ‘is’가 이에 뒤따르며,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small’, 그리고 ‘y’가 이어진다.

이런 류의 분석주장은 I-a 즉 M1, M2, M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 분석이 아니다.

또한 분석은 의미분석도 아니다(같은 곳). “‘x는 형제이다.’는 ‘x는 남자동기이다.’와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두 표현의 의미가 똑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 각각의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각각의 표현을 모르는 사람도 이 전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무어에 따르면, 이 문장은 두 기호의 개념을 말해주는 바 없이 두 기호가 뜻이 같다는 주장만을 내놓는다. 그가 “의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기호의 구문론적 특징에 관한 주장이므로 앞의 기호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구문론적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무어는 랑포드가 제시한 분석을 “형식적 분석”이라 부르고 이에 반대한다. “x는 정육면체이다.”와 “x는 12개의 모서리를 갖는 정육면체이다.”는 서로 형식적 분석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보기에 이는 기호 사이에 도출만을 말하고 있으며 정육면체임 개념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명백히 개념 간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 간의 구문론적 관계에 관한 주장이므로 분석관계를 표현하지 못하는 셈이다.

무어는 이런 반론을 제기한 후에 분석의 역설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Moore, p. 665).

“형제임은 남자 동기임과 똑같은 것이다.”는 진술이 옳다면, 당신이 “형제임은 형제임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경우 정확하게 똑같은 진술을 제시한다고 해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명백히 두 진술은 똑같지 않다. [원저자 강조]

무어에 따르면, 분석의 역설이란 다음 두 진술이 똑같으면서 똑같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석의 역설을 해결하려면 다음 두 진술의 동일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A1-4. 형제임은 남자동기임과 똑같은 것이다.
- A2. 형제임은 형제임과 똑같은 것이다.

무어는 앞의 인용문 다음 문장에서 A2가 분석이 아니라고 말한다.¹⁰⁾ 언어표현에 관한 기준 I-b에 의해서 A2를 분석이 아니라고 쉽게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I-c는 A2를 분석에서 배제할 더 강력한 이유를 제공한다. 한편, 무어 자신이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진술도 배제하고 싶을 것이다.

- A3. 형제임은 곤아우임과 똑같은 것이다.¹¹⁾

10) 여기서 다루는 A1조차도 철학적 분석의 실례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King (1996), p. 155; (2007), p. 198).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예를 다루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분석진술 자체로 인한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 이 예를 사용하는 데 대한 더 자세한 변명은 Mills (2008)에 잘 나와 있다.

11) 원래 “형제”와 “곤제”(昆弟)는 동의어이다. 그런데 두 낱말 모두에 “제”가 등장해서 중목을 방지하고자 “아우”로 대체했다. 이보다 더 그럴듯한 예들이 많다. “관성을 가짐은 질량을 가짐과 동일하다”(Black (1944), p. 266), “공임은 구(球)임이다”(Cobb (2001), p. 424), “빠름은 신속함이다.”(Rieber (1994), p. 105).

이는 I-c③에 의해서 분석이 아니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후자의 표현은 전자보다 덜 관용적이다. (실제로 논자가 이 논문에서 만든 표현이므로 전혀 관용성이 없다.)

2) 대응의 확장: 반-언어적 해석

특히 무어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은 A1과 A2, 그리고 나아가 A3가 어떤 면에서 또는 어떤 뜻으로는 똑같은 진술이지만, 다른 면에서 또는 다른 어떤 뜻으로는 다른 진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무어는 이를 위해서 언어표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역설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A1과 나머지 진술(A2와 A3)이 개념상의 동일성을 갖기는 하지만, 언어상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논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Beaney 2009b, §4). 그의 반-언어적 전략은 강력하기에, 이후에도 이를 통해 역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피분석항이 개념이며 분석관계가 개념간의 동일성 관계라는 무어의 주장과 긴장관계에 있다(Bradley & Swartz 1979, p. 190). 분석진술은 개념에 관한 진술이거나 개념간의 동일성에 관한 진술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 관한”의 의미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A1이 언어표현에 관한 진술이기도 한가?

반-언어적 전략의 성패는 이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 블랙은 (비록 무어와 다른 방식으로 분석진술을 해석하고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서 역설을 회피하려고 하였지만¹²⁾ 분석진술에 대한 무어의 반-언어적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Black 1944, pp. 265-267). A1-4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2) 실제로 블랙은 분석진술의 분석관계가 동일성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본고 3장 4절 참고.

B1. 형제임 개념은 “남자동기임” 표현에 의해서 지칭되며, 남자동기임 개념은 “형제임” 표현에 의해서 지칭된다.

위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다. “D”는 지칭관계, “B”와 “M”은 각각 개념 형제임, 남자동기임, “m”과 “b”는 각각 언어 표현 “남자동기임”과 “형제임”이다.

B2. $D(B, m) \ \& \ D(M, b)$

위의 표현은 두 개념과 두 표현에 관해서 언급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두 표현이 지칭하는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두 표현이 동의성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일한 개념(형제임 또는 남자동기임)과 두 표현(“형제임”과 “남자동기임”)에 관한 진술이다.

이와 더불어 지칭관계가 일대다 관계임을 표현하는 다음 전제를 덧붙인다.

B3. $(x)(y)(z)\{D(x, y) \ \& \ D(z, y)\} \supset x = z\}$

그리고 “형제임”이 형제임을, “남자동기임”이 남자동기임을 지칭하므로 다음도 옳다.

B4. $D(B, b)$

B5. $D(M, m)$

B2~B5에서 다음 두 귀결이 도출된다.

B6. $B = M$

B7. $(x)D(x, b) \equiv D(x, m)$

B6는 오직 개념에 관한 진술이지만, B7은 언어표현에 관한 진술일 뿐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원래의 B1과 동일시하지 못한다. B1은 개념에 관한 진술이면서 표현에 관한 진술이다. 따라서 블랙에 따르면 A1에 관한 무어의 반-언어적 해석은 성립한다. 또한 이런 해석에 따라서 A2는 단지 B4에만 해당할 뿐이며, 따라서 A1과 확실히 다른 진술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3) 대응의 확장: 말함과 보여줌

또 다른 반-언어적 해석은 브래들리와 슈바르츠(Bradley & Swartz 1979, pp. 190-192)의 견해이다. 아래의 BS1은 A1, A2와 달리 언어표현에 관한 것이며 언어표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에 비해서 A1과 A2는 개념에 관한 것이며 개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BS1. “형제임”이라는 표현은 “남자동기임”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개념을 표현한다.
- A1. 형제임은 남자동기임과 똑같은 것이다.
- A2. 형제임은 형제임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A1은 BS1과 달리 언어에 관해 언급하는(mention) 진술은 아니지만 언어를 사용(use)하면서 그 언어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거나 전시한다(show or exhibit)**.¹³⁾ A1은 “형제임”이라는 표현과 “남자동기임”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개념에 대한 표현이라는 정보를 전시한다. 그러나 A2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형제임”이라는 표현이 “형제임”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13) 어떤 것에 관하여 언급하여 말한 내용을 “이차정보”, 그것에 관해 언급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보여주는 (언어에 관한) 정보를 “이차정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Cobb (2001), p. 420.)

(구문적) 정보만을 전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A2는 BS1이나 A1과 똑같은 언어적 정보를 전하지 못한다. A1은 A2가 말하려는 바를 말하지만 즉 둘이 언급하는 것은 똑같지만, A1은 A2가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A2는 BS1이 말하려는 것 즉 언어를 보여주지만 BS1이 말하려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바에 의해서, A1은 동일성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바에 의해서 정보를 갖게 되며 따라서 역설은 없다.

4) 대응의 확장: 유형과 사례

셀라스(Sellars 1950)는 A1, A2와 다음 문장의 차이와 일치를 말하면서 분석의 역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A4. 남자동기임은 남자동기임과 똑같은 것이다.¹⁴⁾

이들은 문장의 유형(type) 면에서 똑같지만, 문장의 사례-집합(token-class) 면에서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들은 각각 다른 사례-집합의 원소인 사례이다. 물론 똑같은 사례-집합의 원소들 즉 사례들은 물리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모양이나 배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같은 집합에 속한다. 이런 취지는 A3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A1과 A2의 차이와 동일이 설명되었으므로 역설은 없다. 셀라스의 착상 역시 한편으로 개념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이를 유형의 동일성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언어의 특징 즉 언어의 사례-집합 동일성에 의존해서 분석진술과 비분석진술 또는 정확한 분석과 부정확한 분석을 구분하므로 반-언어적

14) 원래 셀라스가 들었던 예는 “Red & Bitter = Red & Bitter”, “Ritter = Ritter”, “Ritter = Red & Bitter” 세 문장이다. 여기서 “Ritter”는 작위명이 아니라 두 낱말을 합한 그의 조어이다. 각각 본문의 A4, A2, A1에 대응한다.

전략의 노선이라 분류될 수 있겠다.¹⁵⁾

5) 반-언어적 해석의 한계

반-언어적 해석을 따르는 어떤 방안에 의해서도 A1과 A2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역설의 발생은 두 진술이 다른 언어에 관해서 다른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개념에 관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반-언어적 전략은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므로 역설을 진정으로 해결했다고 말하기에는 미진하다. 논점을 벗어난 해결책은 아무리 강력해 보더라도 환영일 뿐이다.

차라리 비트겐슈타인처럼 분석진술이 역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막는 방안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는 분석을 이론으로 귀착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Wittgenstein 1922, §4.112), 이렇게 될 경우 분석은 결코 옳거나 그르지 않게 되고, 분석의 역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Hanna 2007, p. 151). 그러나 이런 전략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분석의 과정/소산에 매성을 지적했고, 관심의 대상을 분석의 과정이 아니라 분석 활동의 결과 즉 분석진술에 두기로 했다. 비트겐슈타인이 얽혀들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 법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해결을 요구한다. (더구나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활동이라는 그의 이론을 남겼다!)

4. 다양한 역설회피 전략

1) “개념”의 다의성

¹⁵⁾ 여기에서 다루는 셀라스 외에도 여러 철학자가 이런 전략을 취한다. 예를 들어, Carnap (1960), pp. 63-64을 보시오.

언어의 특징에 의존하지 않고 역설을 회피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하나의 유망한 역설회피 전략은 피분석항과 분석항에 주목하는 일이다. 무어에 따르면 피분석항과 분석항은 개념이다. 개념에 대한 성찰이 분석의 성격을 드러내줄 것이고 역설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개념은 분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일의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이에 민감하지 않았던 탓에 역설이 발생했다면, 개념의 다양한 의미에 주의해서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Myers 1971, p. 297; p. 303). 이를테면, 개념이 능력(성향 개념, a dispositional concept)이나 과정(발생 개념, a occurrent concept)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속성(속성 개념, a property concept)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역설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¹⁶⁾ 성향인 개념은 일종의 능력이다.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의 필요충분조건 진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에 대한 성향인 개념이다. 발생 개념은 개념화(conception)에 해당하는데, 생각이나 사고의 대상이 파악되는 방식을 뜻한다.

어떤 것을 형제임이라고 파악하는 방식과 남자동기임이라고 파악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렇듯 형제임에 관한 분석 이전 사고의 확인 내용은 분석 이후의 형제임에 관한 사고의 확인 내용 즉 남자동기임과 서로 다르므로, 이 둘의 관계를 주장하는 진술은 종합적이다. 발생인 개념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진술은 종합적이다. 그렇다고 해도 남자동기임은 형제임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그런데 개념분석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즉 속성인 개념을 피분석항으로 삼는다. 따라서 역설은 발생인 개념과 속성인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일 뿐이며, 역설은 없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A1과 A3와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16) 개념을 속성과 동일시하는 견해로는, Chisholm (1992), Chisholm & Potter (1981), King (1998; 2007), Steup (1996) 등이 있다.

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형제임을 파악하는 방식과 곧 아우임을 파악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두 진술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A1과 A2, 두 진술의 속성 개념상의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설이 야기되므로, “발생과정 속성 개념상으로는 똑같은 주장이지만, 발생 개념상에서는 다르다.”는 진단으로는 역설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비트겐슈타인처럼) 역설을 없애는 듯 무시하기만 했다.

2) 속성과 동치성

개념의 본성에 관한 여러 논란이 존재하는데 이런 논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석의 대상을 개념으로 보고, 분석 관계를 개념간의 동일성으로 해석하는 분석이론을 믿을 수 없다(King 1998, p. 155). 그래서 피분석항을 속성으로 보고, 분석진술을 개념간의 동일성이 아니라 속성 동일성을 주장하는 명제간의 동치 진술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를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남자동기라고 말하는 것과 동치이다. 분석진술 A1은 아래와 같은 꼴을 갖는 진술로 해석된다.

$$KA1. (x)(Fx \equiv Gx)$$

여기서 “F”는 “형제임”, “G”는 “남자동기임”을 가리킨다고 하자. 모든 x에 대해서, x가 남자동기임이라는 속성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는 형제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무어의 문제는 A2를 다시 해석한 다음 진술과 차이를 설명하는 문제가 된다.

$$KA2. (x)(Fx \equiv Fx)$$

모든 x에 대하여 그것이 형제임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만 그것은 형제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화해도 분석의 역설은 발생한다. KA1과 KA2는 똑같은 명제를 표현해야만 하면서 또한 그러지 않아야 한다(King 1998, p. 156). 두 명제가 다르다는 것은 두 명제의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KA1라는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고, 그 문장의 요소 각각, 이를테면 술어 'F'와 'G'는 속성에 적용되고, 특히 'G'는 복합속성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진술이 옳으려면, 형제임과 남자동기임이 동일한 속성이며, 또한 남자동기임 속성의 각각 구성성분(constituent)인 남자임과 동기임이 형제임의 구성요소(components)이어야 한다(King 1996, pp. 168-169; 2007, pp. 204-205). 그러나 KA2는 이런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두 술어가 하나의 속성을 나타내기는 하므로 KA1이 KA2와 같아 보이는 직관은 설명된다.) 따라서 KA2는 분석이 아니거나 적어도 정확한 분석이 아니므로 분석의 역설은 사라진다.

이 해결책은 명제의 구조라는 생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비유에 의존하고 있기에(Mills 2008, pp. 308-309)¹⁷⁾ 두 진술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따라서 더 큰 이론적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밀즈의 비판에 맞서 명제의 구조라는 관념을 승인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따른다고 해도, A3형 진술과 차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진술은 KA1과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좋은 답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KA1의 경우 피정의항인 $(x)Fx$ 의 구조를 $(x)Gx$ 가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가 옳으며 후자가 옳으면 전자가 옳기 때문에 두 명제의 내용이 동등하다는 것은 명확하며, 두 명제의 정보 내용은 명확하게 일치

17) 밀즈에 따르면 명제에 관한 비유적 설명은 프레게(Frege 1963)에서 비롯되었다.

하고, 따라서 정보의 확장은 없다. 분석항에서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다면 이는 피분석항에 이미 암묵적으로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명제가 정보의 확장이 없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가?¹⁸⁾

3) 분석관계: 비동등성

분석관계를 어떤 형태이든 동등한 관계, 즉 동치, 동일, 동의 등으로 보는 한은 어떻게든 역설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다. 피분석항과 분석항이 동등하다면 피분석항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이미 분석항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럴 경우 사소해지고, 분석항의 정보가 피분석항의 정보에 비해 확장된다면 분석이 부정확해질 것이다. 그래서 역설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역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동등성 관계도 부정하는 방법이다.¹⁹⁾ 이 가운데 하나는 분석관계를 두 항 사이의 동등성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랙(Black 1944, pp. 263-265)이 이런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피분석항과 분석항의 관계는 동일성이라는 이항관계가 아니라, 마치 곱셈을 삼항관계로 보는 것이 가능하듯이, 피분석항, 분석항1, 분석항2, 분석항k ... 끼리 맺어지는 다항관계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A2는 형제임, 형제임 둘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둘이 동일한 진술이라는 우려는 없

18) 나아가 $F = G$ 이면 $(x)(Fx \equiv Gx)$ 는 보증되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A1과 A2를 각각 KA1과 KA2로 재해석할 수 있겠지만, 역을 생각하면 이런 재해석의 정당성에 의심이 제기될 것이다. 어떤 것이 신장을 가졌다는 명제와 어떤 것이 심장을 가졌다는 명제는 동치이지만, 신장을 가짐과 심장을 가짐, 두 속성은 동일하지 않다. 속성간의 동일성 없이도 동치진술의 진리성은 동일성 진술의 진리성에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비판의 착상은 Kim (1996), pp. 362-370에서 차용했다.

19) 이런 방법보다 더 보수적인 역설회피 전략은 분석관계가 역설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동등관계라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Chisholm & Potter (1981)를 참고하시오.

으며 역설도 없다. 따라서 이항관계를 주장하는 A2와는 원래 다른 명제이며, 분석의 역설을 사라진다. 그러나 분석항은 여러 하위 항의 조합을 보여주어야 한다(무어의 조건 Ib-②). 분석진술이 주장하는 바는 피분석항과 여러 분석항 조합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두 항사이의 관계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관계를 또 다른 방식의 삼항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관계를 나타내는 “...이다”는 동일성, 서술(predication), 구성성분(constitution)의 “...이다”와 달리 2항관계가 아니라 피분석항, 분석항, 분석항 표현에 의해 전시된 피분석항의 논리적 구성물 사이에 성립하는 3항관계이다. “분석의 표현에서, 분석항 개념의 표현은 그 형식을 통해서 **피분석항의 논리적 구성물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기도 한다. 달리 말해서, 분석에서 분석항 표현은 분석항 개념을 표현할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분석항의 형식 덕분에) 피분석항의 논리적 구성물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거나 전시한다**”(Earl 2007a, p. 197[원저자 강조]). 이에 따르면, 분석의 도식은

AM : AS 또는 AG(AM, AS)

과 같은 이항관계가 아니라, 다음과 같다(Earl 2007a, pp. 198-199).

AG(AM, AS, 분석항 표현에 의해서 전시된 피분석항의 논리적
구성물 가운데 하나)²⁰⁾

어떤 개념의 논리적 구성물이란 그 개념의 구성성분의 모음이다. 이를 A1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²⁰⁾ 얼(Earl 2007a, p. 198)이 사용한 원래 표현은 “A(피분석항, 분석항, 분석항 표현에 의해서 전시된 피분석항의 논리적 구성물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의 표현에 맞춰 변경하였다.

AG([형제임], [남자동기임], ([남자임], [동기임]))

여기서 “[형제임]”은 피분석항인 형제임 개념, “[남자동기임]”은 분석항인 남자동기임 개념이며, “([남자임], [동기임])”은 [남자동기임]의 표현 즉 “남자동기임”으로 전시된 [형제임]의 논리적 구성성분의 모음을 의미한다. A1을 평범한 일상어로 표현하면, “형제임은 남자동기임이며, 또한 ‘남자동기임’은 형제임의 논리적 구성성분을 전시하는 일이다.”(이에 비해서 A2는 “AG([형제임], [형제임], ([형제임]))”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혀 분석이 아니다. 형제임의 논리적 구성물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항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추가적인 제삼항은 중언부언일 뿐이다. A1 진술에서 남자동기임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동기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언어표현이 표현하고 있는 남자동기임 개념은 남자임 개념과 동기임 개념의 논리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남자동기임”이라는 표현은 남자임 개념과 동기임 개념의 논리적 구성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분석진술의 분석항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석항 표현에 의해서 전시된 피분석항의 논리적 구성물 가운데 하나가 분석항이다. 따라서 위의 삼항관계는 전혀 삼항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이항관계이다.²¹⁾ 따라서 동등성을 거부하여 역설의 회피를 피한 전

21) 또한 제삼항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평범한 모든 진술이 제삼항을 필요로 한다는 반론에 부딪친다. 전혀 분석을 제시한 문장이 아닌 “철수가 헐레벌떡 뛰어간다”는 문장에서 “헐레벌떡 뛰어간다”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헐레벌떡 뛰어감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간다”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헐레벌떡 뛰어감이라는 개념이 적용됨을 주장할 뿐 아니라, 이 개념은 헐레벌떡 개념과 뛰어감 개념을 논리적 구성성분으로 갖고 있기에, 헐레벌떡 뛰어감이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구성된 방식이 “헐레벌떡 뛰어간다”는 표현의 사용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얼의 이론은 모든 언어표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이론이다.

략은 실패했다.

5. 정보의 확장

1)역설의 근원

피분석항과 분석항의 동등성이 역설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여러 역설회피 전략의 공통된 가정이었으며, 이는 랑포드가 역설을 지적한 이래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역설회피의 가장 중요한 방책은 동등성 거부였다. 그러나 실제로 역설의 발생에 동등성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석진술을 “필연적”이며 또한 “종합적”이라고 주장하는 분석이론이다. 무어가 M4와 M5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이런 방책을 취한다. 이후의 분석이론도 마찬가지이다. 분석진술은 만일 옳다면 필연적으로 옳고, 또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떤 진술이 필연적으로 옳다면 정보를 갖지 않는다. 아래에서 “분석진술인 A가 필연적으로 옳다.”를 N으로, “A는 정보를 갖는다.”를 Q로 놓는다면 분석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1. $N \ \& \ Q$	(가정, 분석의 해석)
P2. $N \supset \sim Q$	(가정)
P3. N	(1. 단순화규칙)
P4. $\sim Q$	(2,3. 전건긍정식)
P5. $\sim Q \vee \sim N$	(4. 부가규칙)
P6. $\sim N \vee \sim Q$	(5. 교환규칙)
P7. $\sim(N \ \& \ Q)$	(6. 결합규칙)

여기서 P2가 주장하는 바는 A가 필연적으로 옳다면 A는 정보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로부터 타당한 추론규칙의 도움을 받아 P1과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추론이 역설적인 이유는 P1과 P2는 서로 모순관계에 놓여있으므로 어떤 결론이든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위의 N이 동등성 진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진술이라도 P2를 유지하는 한 역설적 귀결을 갖게 된다.²²⁾ 예를 들어, 피분석항과 분석항이 피분석항에서 분석항의 방향으로 필연적 추론관계에 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분석진술은 (연역적 타당성의 정의에 따라) 필연적으로 옳게 되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지 못하게 된다.²³⁾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분석진술이 어떤 종류의 동등성 주장이어서 역설이 발생하기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P1과 P2가 부정합진술 집합이기에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분해적 분석, 또는 필요충분조건 분석 등으로 불리는 고전적 분석만이 역설에 취약하지 않으며, 이미 말했듯이, 다른 종류의 동등성 주장과 동등성 주장이 아닌 분석, 즉 피분석항과 분석항의 비대칭성을 주장하는 분석이론도 역설에 얽히는 단초를 제공한다.²⁴⁾

22) 분석에 대한 동등성 모형 지지자 입장에서는 비대칭적 분석은 부족하거나 충분한 깊이를 갖지 않는 분석이라고 취급할 것이다. 분석의 깊이에 관한 논의는 Bradley & Swartz (1979), pp. 183-184; Soames (2002), pp. 276-277; King (2007), pp. 210-211을 보시오.

23) 여기에 가장 근접한 분석 개념을 갖고 있는 철학자는 스트로슨이다 (Strawson 1992, pp. 17-28). 그의 연결적 분석에 따르면, 분석관계란 함축, 전제가정(presuppose), 배제(exclude) 등인데, 이 가운데 들쭉는 칸트식의 선험적 논증(transcendental argument)이지만, 나머지 둘은 연역적 관계이다. 스트로슨의 분석 이론에 대한 이런 해석은 Joll (2010)을 참고. 또한 어떤 형태의 분석이든 필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흥미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진술에 대한 비동등성 해석을 취할 수 있다. 그는 실제로 이런 방향 전환이 역설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Wittgenstein (1953), §182; Bealer (1983)). 그러나 그의 기본 취지가 모든 언어의 의미를 그 언어사용의 필요충분조건을 나열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탓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분석진술과 관련한 논의가 모든 언어사용에 관한 논의로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점만 인정한다면, 가족유사성 개념 자체가 비동등성 해석의 대안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24) 콰인의 분석인 “바꿔쓰기”(paraphrasing)가 이런 역설에 취약한지 여부는 논

2) “정보”의 애매성

그렇다면, 분석이 무엇인가 정보를 주기를 원하면서 분석의 역설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P2를 버려야 한다. 경험주의는 P2를 고집하는 대표적인 진영으로 보인다. 분석가는 분석진술이 필연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게 마련인데, 필연성은 분석성에 의해서 정의되며, 분석적인 것은 바로 정보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필연적이면 정보를 갖지 않는다. 필연성에 관한 이런 경험주의 유지하는 한 분석의 역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런 연유로 무어는 경험주의를 거부했다.²⁵⁾

앞에서 살펴본 여러 해결책은 무어가 재설정된 방식 즉 A1과 A2의 일치와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위한 전략을 요약하자면 “~에 관한 정보”의 애매성을 지적하면서, P1을 “N & Q₁”로 해석하고, P2를 “N ⊃ ~Q₂”로 해석하는 것이다(이를 P2'이라 하자). 반-언어적 노선은 P1을 “분석진술 A1은 (A2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옳고, 또한 (A2와 달리) 언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로 해석하고, P2를 “만일 분석진술 A1이 필연적으로 옳다면 (A2와 마찬가지로) 개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각각을 해석하여 역설을 회피한다. 그에 비해서 이런 무어식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A1과 A2의 차이가 언어에 관한 정보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진술 A1은 (A2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옳고, (A2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며, “만일 분석진술 A1이 필연적으로 옳다면, (A2와 마찬가지로) 정보₂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

란거리이다. 그러나 그가 바뀌어져야 하는 항과 바뀌어주는 항 사이의 관계를 임의적 관계라고 주장하는 한 아무런 흥밋거리가 되지 못하게 된다.

25) A1이 “어떤 뜻에서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이는 전통적인 분석적/종합적 진리의 구분에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Rey (2013), §3.2. 나아가 이는 경험주의자의 이분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무어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런 점에서 경험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의 정보는 서로 같지만, 다른 면의 정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설이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았듯이 무어는 A1은 A2와 달리 분석적 진술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뜻에서인가는 종합적이며, 따라서 사소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²⁶⁾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논의를 통해서 “어떤 뜻에서는”의 여러 후보가 좀 더 분명해졌다. 정보의 애매성을 드러낸다는 취지 아래 이들의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을 가지고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2조차도 매우 미약하지만 구문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형제임은 형제임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아무리 희미하다고 해도 두 기호 배열의 특징에 관한 주장 또는 그 특징을 (앞의 브래들리와 슈바르츠, 그리고 얼이 말한 의미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한국어 문장의 배열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A1은 A2와 달리 추가적인 구문론적 정보를 갖는다. A1진술의 사용을 통해서 “형제”라는 기호와 “남자동기”라는 기호가 서로 같은 기호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의미론적 정보도 추가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무어의 반-언어적 해석 및 다른 여러 논의(Black 1944; King 1998; King 2007)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앞의 다른 논의(예를 들어, King 1998; 2007)에서 지적되었듯이, A3과 달리 A1은 피분석항 내부의 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구문론적 정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A1의 피정의항을 개념이 아니라 속성이라고 볼 경우, 속성이라는 추상적 대상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 대상에 관한 존재론적 정보를 담고 있다.²⁷⁾ 또한 A1을 동등성

26) 무어의 이런 입장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Lazerovitz (1964), pp. 182-213을 참고.

27) 이는 보편자 실재론을 가정할 경우에 옳다. 속성에 관한 유명론이나 개념론은 이에 반대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비록 추상적 대상에 관한 것이라 해

진술로 해석하든 비동등성 진술로 해석하든, “어떤 뜻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며 “어떤 뜻으로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어 식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떤 뜻에서는” 역설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의 관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A2뿐만 아니라 A1도 경험세계에서 조우하는 구체적 대상에 관한 존재론적 정보를 담지는 않고 있다. 흄과 라이프니츠가 말한 사실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어의 진단과 달리, 경험주의가 역설에 책임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보”의 애매성은 경험주의자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느 누구도 이 애매성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P1과 P2의 부정합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주의자는 A1과 A2가 구체적 대상에 관한 정보를 갖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무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관한 정보는 전달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다.

3) 남는 문제: “확장”의 애매성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제시된 해결책이 여러 난점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난점을 모두 극복하고 역설해결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분석진술 내부를 보게 되면 역설의 여지는 언제나 남아있다. 역설해결을 위해 분석진술 A1과 A2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정보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해도, A1 내부의 정보가 확장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석진술 내부에서 피분석항에 비해서 분석항의 정보가 확장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석진술 내에서 피분석항에 객관적으로

도) 존재론적 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하여 추상적 대상에 관한 존재론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정보가 분석항에 추가되었다면, 그 진술의 필연성은 훼손된다(즉 “ $Q \supset \sim N$ ”). “ $Q \supset \sim N$ ”은 앞의 P2에 해당하는 “ $N \supset Q$ ”와 대우인 동치이기 때문에, 분석의 역설은 되돌아온다!

그러나 역설회피의 여러 전략(더 나아가 모든 전략)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도 정말로 염려스러운 것인가? 하나의 유비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유클리드의 공리체계로부터 필연적으로 기하학의 여러 정리를 도출한다. 어떤 뜻으로는 정보의 확장이 없다. 이미 모든 객관적 내용이 공리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뜻에서는 정보가 확장되었다. 피타고라스정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가 증명과 함께 발굴된다.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광택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역설의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물이 햇빛 아래 놓인 새로운 상황을 주목하라고 주문한다.²⁸⁾ 분석의 목적 자체가 조명하여 명료하게 하는 것 즉 계몽이었다.²⁹⁾

더 나아가 분석진술이 아니라 분석진술을 생산하는 분석 언어행위에 주목한다면, 분석을 통한 정보의 확장에 대해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떤 시점에 확정된 분석진술에서든 분석항이 피분석항에 비해서 정보확장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연, 사회, 인간에 관한 지식의 확장에 따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결정의 변화에 따라 분석언어행위는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를 새로운 분석진술이 대체되는 것 같다.³⁰⁾ 하

28) 이런 함의 관계의 방향이 “만일 분석항이면 필연적으로 피분석항이다”일 때 역시 정보의 확장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확장이 성취될 수도 그렇지 않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분석의 목적에 관한 견해차에 의해서 다른 분석의 종류를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특정 유형은 역설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Ackerman (1990), p. 540; Bealer (1983), p. 711.

30) 이는 정의 언어행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박준호 (2008), pp. 108-111 참고. 지면관계로 이를 분석 언어행위에 적용하는 일은 자세히 전개하지 못

나의 분석진술이 다른 분석진술로 대체되는 정보의 확장은 늘 벌어진다. 따라서 역설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분석진술이 하찮더라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 다른 분석진술이 개발, 제안되고 때에 따라 대체된다. 게티어(Edmund Gettier) 이전의 지식 분석과 이후의 지식 분석이 이를 대변하는 좋은 예이다. 이런 이유로 난제가 편제하는 상황에서도 분석은,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철학의 방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채, 계속 시행되고 있다.³¹⁾³²⁾

한다. 분석이 언어사회에 상대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King (1998; 2007)을 보시오.

- 31) 아마도 이런 이유로 무어 이후에도 분석의 역설에 대해 분석철학 내부에서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주장(예를 들어, Myers (1971), p. 296)이 있는 것 같다. 이 역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 같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러 철학자가 분석과 관련한 이 곤란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해결하는 방도를 강구했다. 여기에서 다루고 소개한 철학자 이외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직접 표명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콰인(Quine 1960, p. 259), 처치(C Church 1946), 파슨스(Parsons 1981) 등을 들 수 있고, 프레게의 난제 역시 이에 밀접한 관련(Cobb (2011); Parsons (1981); Salmon (1986))이 있다. 이 주제 관해서 최근에 가장 활발했던 철학자는 에커만이다. 특히 Ackerman (1981; 1990)이 이 논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32)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논문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인하여, 논지 전개상의 불필요한 점을 덜어내고 무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의 지적과 달리 논자는 피분석항의 본성에 관한 특정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는 분석관계가 필연적 동일성 관계인지, 필연적 비동일성 관계인지, 아니면 이와 다른 관계인지에 관한 논자 자신의 견해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상 이를 모두 담기 어려웠으며, 앞으로 별도의 글을 통해서 시도해 보겠다.

참고문헌

- 박준호 (2008), “규정주의 정의이론”, 『철학연구』 108, 대한철학회, pp. 91-114.
- Ackerman, D. Felicia (1981), “The Informativeness of Philosophical Analysis”, in P. French, et al. 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6,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13-320.
- Ackerman, D. Felicia (1986), “Essential Properties and Philosophical Analysis”, in P. French, et al. 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1,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04-313.
- Ackerman, D. Felicia (1990), “Analysis, Language, and Concepts: The Second Paradox of Analysis”, in James E. Tomberli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4, Atascadero, CA: Ridgeview Publishing, pp. 535-543.
- Baldwin, Tome (1992), *G. E. Moore: The Arguments of Philosopher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ldwin, Tom (2004), “George Edward Moor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이하 SEP), <http://plato.stanford.edu/entries/moore/>
- Bealer, G. (1983), “Remarks on Classical Analysis”, *Journal of Philosophy* 80(11), pp. 711-712.
- Beaney, Michael (2000), “Conceptions of Analysis in Early Analytic Philosophy”, *Acta Analytica* 15(25), pp. 97-115.
- Beaney, Michael (2007), “The Analytic Turn in Early Twentieth-century Philosophy”, in Beaney ed. (2007), pp. 1-30.
- Beaney, Michael (2009a), “Analysis”, *SEP*, <http://plato.stanford.edu/entries/analysis/>

- Beaney, Michael (2009b), "Supplement to Analysis: Conceptions of Analysis in Analytic Philosophy", *SEP*, <http://plato.stanford.edu/entries/analysis/s6.html>
- Beaney, Michael, ed. (2007), *The Analytic Turn: Analysis in Early Analyt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New York: Routledge.
- Black, Max (1944), "The Paradox of Analysis", *Mind* 53, pp. 263-267.
- Bradley, Raymond & Swartz, Norman (1979), *Possible Worlds: An Introduction to Logic and Its Philosophy*, Basil Blackwell. [슈바르츠의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됨. 여기서는 이 자료를 참고함. <http://www.sfu.ca/~swartz/pw/#all>]
- Carnap, Rudolf (1960), *Meaning and Necessity: A Study in Semantics and Modal Log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sholm, Roderick (1948), "The Problem of Empiricism", *Journal of Philosophy* 45, pp. 412-417.
- Chisholm, Roderick (1992), "Identity Criteria for Properties", *The Harvard Review of Philosophy* 2, pp. 14-16.
- Chisholm, R., & Potter, R. C. (1981), "The Paradox of Analysis: A Solution", *Metaphilosophy* 12(1), pp. 1-6.
- Church, Alonzo (1946), "Review of Four Articles on the Paradox of Analysis", *Journal of Symbolic Logic* 11, pp.132-133.
- Cobb, Jeffrey (2001), "Problems for Linguistic Solutions to the Paradox of Analysis", *Metaphilosophy* 32(4), pp. 419-426.
- Daly, Chris (2010),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Methods*, Broadview Press.
- Earl, Dennis (2007a), "A Semantic Resolution of the Paradox of Analysis", *Acta Analytica* 22(3), pp. 189-205.

- Earl, Dennis (2007b), “Concept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이하 IEP] <http://www.iep.utm.edu/concepts/>
- Frege, Gottlob (1963), “Compound Thoughts”, *Mind* 72, pp. 1-17.
- Hanna, Robert (2007), “Kant, Wittgenstein and The Fate of Analysis”, in Beaney ed. (2007), pp. 142-163.
- Joll, Nicholas (2010), “Contemporary Metaphilosophy”, *IEP*, <http://www.iep.utm.edu/con-meta/>
- King, J. (1998), “What is a Philosophical Analysis?”, *Philosophical Studies* 90, pp. 155-179.
- King, J. (2007), *The Nature and Structure of Cont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eagwon (1996), *Philosophy of Mind*, Boulder: Westview Press, 하종호 · 김선희 역(1996), 『심리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Lazerowitz, Morris (1964), “Chapter 4. Moore and Philosophical Analysis”, in his *Studies in Meta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 Langford, C. H. (1942), “The Notion of Analysis in Moore's philosophy”, in Schlipp ed. (1942), pp. 321-342.
- Mills, Eugene (2008), “Are Analytic Philosophers Shallow and Stupid?”, *Journal of Philosophy* 105(6), pp. 301-319.
- Moore, George Edward (1942), “Reply to My Critics: Analysis”, in Schlipp ed. (1942), pp. 533-667.
- Moore, George Edward (1966), *Lectures on Philosophy*, London: Humanities Press.
- Myers, C. Mason (1971), “Moore's Paradox of Analysis”, *Metaphilosophy* 2(4), pp. 295-308.
- O'Connor, David (1982), “Moore and the Paradox of Analysis”, *Philosophy* 57, pp. 211-221.

- Parsons, Terence D. (1981), "Frege's Hierarchies of Indirect Senses and the Paradox of Analysi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6(1), pp. 37-58.
- Rey, Georges (2013), "The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SEP*, <http://plato.stanford.edu/entries/analytic-synthetic/>
- Rieber, S. D. (1994), "The Paradoxes of Analysis and Synonymy", *Erkenntnis* 41, pp. 103-116.
- Salmon, Nathan U. (1986), *Frege's Puzzle*, Cambridge: The MIT Press.
- Sellars, Wilfrid (1950), "The Identity of Linguistic Expressions and the Paradox of Analysis", *Philosophical Studies* 1(2), pp. 24-31.
- Schlipp, Paul A. ed. (1942), *The Philosophy of G. E. Moore*, La Salle: Open Court.
- Soames, Scott (2002), *Beyond Rigid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 Sosa, E. (1983). "Classical Analysis", *Journal of Philosophy* 80(11), pp. 695-710.
- Steup, Matthias (1996),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Prentice Hall, 한상기 역(2008), 『현대 인식론 입문』, 파주: 서광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Strawson, P. F. (1992), *Analysis and Metaphysics: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Morton G. (1945), "A Note on the 'Paradox of Analysis'", *Mind* 54(213), pp. 71-72.
- Wisdom, John (1934), "Is Analysis a Useful Method in Philosoph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 Vol* 13, pp. 65-89.
- Wittgenstein, Ludwig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

C. K. Ogden, London: Routledge.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3rd. ed.,
New York: MacMillan.

전북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wlpark@chonbuk.ac.kr

The Paradox of Analysis and Some Resolutions

Joonho Park

We put forward a scheme of the theory of analysis, and G. E. Moore's theory of analysis is reconstructed. As C. H. Langford pointed out, Moore's theory commits to the paradox of analysis which says that if a analysis is correct then it is not informative, and if it is informative it is not correct. For, according to his theory, analysing statement is necessarily true identity statement and have some information. Moorean responses which is given by Max Black, Raymond Bradley and Norman Swartz, and Wilfrid Sellars rel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bout concepts and linguistic entity. These approaches are deficient in dealing properly with the difference in concepts as analysandum and analysans. Also, non-Moorean resolutions asserted by Myers, King, Black, and Earl are examined.

Key Words: paradox of analysis, a scheme of the theory of analysis, Moore's theory of analysis, a taxonomy of resolution